



열여섯번째 이야기

지난 7월 9일(토) BEE 가족들은 All & One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BEE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루체 합창단의 특송과 난타 공연이 있었고, 예배 후에 권태남, 김미연 선교사의 파송식을 가졌다. 파송식 후에는 BEE의 이사들이 준비한 식사로 함께 교제하며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되었다. 다음은 All & One 당시 조문상 선교사의 설교문을 정리한 것이다. (정리 : 조정문, 사진 : 손진영, 편집 : 최지영)



BEE의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 지상 명령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라) 헬라어로 보면 그 중 주동사는 ‘제자로 삼으라’이고 나머지 셋은 주동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분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BEE의 사역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다”는 전도를 전제로 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복음이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1:8,9) 다른 복음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니카라과는 97%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중 40%인 500만 명 정도가 개신교입니다. 2월에 그곳에서 30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을 모아서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세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동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마칠 즈음에는 그들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면 이단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지만 나가서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중남미 전체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계에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중 5억의 복음주의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2/3 이상은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BEE의 『갈라디아서』, 『로마서』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게 BEE World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ICI라는 단체에서 신학학위를 주기 위해 만든 과목이었어요. BEE가 이 책을 빌려서 쓰다가 2000년도 초에 판권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과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을 때 신앙은 헛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터키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바울, 바나바 등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고, 폴리킵 같은 교부가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1900년초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20% 이상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6.1%, 복음주의자는 7000명정돈데, 퍼센트로 하면 0%예요. 왜일까요? 복음이 없어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아서입니다.

영국도, 미국도 그리스도인의 감소세가 보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위기의 조짐이 보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천국에 올 우리의 후손들은 없습니다. 말씀이 경고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위기의식이 없다면 한국의 기독교도 서구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는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말씀 사역에 헌신한 BEE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라’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도, 가르쳐 지키게 할 수도 없지요. 앞의 두 동사는 현재시제인데 ‘가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단 한번, 중요한 과거의 사건일 경우 과거 시제를 쓰는데, 이는 제자 삼는 사역에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귀중한 사명은 제자 삼기 위해 가서 복음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셨고 다양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명령이지만, 우리 BEE에게는 특별명령으로 주신 BEE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명령은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명과 헌신

몇 개월 전 어떤 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교회 구조로 볼 때, 한국교회도 서구 교회의 전철을 밟아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곧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신앙 모습으로 볼 때... 제 신앙은 쇠퇴하지 않을까요?”

“제 후손들의 신앙은 서구의 기독교와 같이 점차 약해지다가 급기야는 터키의 기독교와 같이 쇠퇴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의 기독교는 서구의 기독교와 같이 점차 약해지다가 끝내는 터키의 기독교와 같이 쇠퇴하지 않을까요?"

“세계 곳곳의 기독교는 서구의 기독교와 같이 점차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터키의 기독교와 같이 쇠퇴하지 않을까요?”

답은 복음과 말씀입니다. 나와, 나의 후손과, 한국과, 세계의 영적 생명은 지금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 가운데 내가 살 때, 나의 생명력도 역동성을 내어 내 후손의 신앙에도 생명력을 불어 넣습니다.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 나라의 기독교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기독교도 생명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EE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유지하는 이 사명에 우리 모두 더욱 헌신하십시오.

“BEE Korea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전 세계의 교회지도자들을 BEE 프로그램으로 양육하여 헌신된 사역자를 재생산하게 한다.”